

“아름다움 어디서 오나?”

서울대 최초의 고졸강사 목수 신영훈씨 첫 질문



◇현존 최고(6세기)의 아미타불로 알려진 금동신묘명상존불(국보 85호).

중생에게 띄우는 아미타불의 미소

용인 호암미술관 8월말까지
삼국-조선 불상·불화 전시

'나무아미타불'을 열람하면 누구나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신앙. 전시대에 걸쳐 기층민중으로부터 왕실에 이르기까지 즐기며 숭배해 왔으며, 불교미술의 중요한 주체가 돼 다양한 미술품이 조성돼왔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이 3일부터 8월30일까지 개최하는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은 미술·아미타전'은 우리민족의 다양한 미의식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호암미술관의 테마전.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조성된 아미타계 불상 불화 사경 전적 불구 등을 한자리에 모아 아미타신앙과 미술의 두 측면을 조망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특히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미타불에 담긴 자비의 미소는 울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 줄 것이다.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은 아미타계 미술의 세계는 다채롭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동신묘명상존불(제85호·고구려 571년), 금동관음보살입상(제85호·삼국시대), 아미타삼존도(제218호·고려) 등 국보 3점과 금동관음보살입상 2점(제780,927호·통일신라), 지장도(제784호·고려), 수월관음도(제926호·고려), 백자묵서지장보살본원경(제940호·조선) 등 보물 5점 등 총 42점의 아미타관련 유물이 선보인다.

고구려의 '금동신묘명상존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미타불. 명문에 의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소원하는 다섯 사람이 결사하여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신앙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경주시내 남노소소가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열람할 정도로 크게 유행했다. 아름답고 정교하기로 이름난 고려불화, 역시 아미타도가 주류를 이룬다. '아미타삼존도'는 고려 아미타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구성을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되며, 수월관음도는 중생의 현실적인 고통을 구제해주는 자비의 보살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의 아미타신앙은 민간신앙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이 여러 청중에게 설법하는 모습의 '아미타극락화상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되었던 민속화풍의 감로탱에도 아귀를 구제해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이 등장한다.

무한한 생명과 빛의 부처님

아미타불 무량수불(無量壽佛·무한한 생명), 무량광불(無量光佛·무한한 빛)로 불리우는 아미타불은 본래 인도의 한 국왕이었으나 부처님의 설법에 감화돼 왕위를 버리고 승려가 된 법장(法藏)비구. 48가지 소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가 됐다. 이후 '아미타불'을 열람하는 수행자는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권속으로는 관음, 세지, 지장보살이 있다. 관음과 세지보살은 각각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며,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에 아미타불의 권속으로 등장한다. 지장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미타불의 권속이 된 듯하다.

윤기석 기자



◇서울대 강단의 첫 강의. 목수와 학생들 모두 진지하다.

지난 4일 서울대 인문관 209호 원탁강의실. 국사학과 석·박사과정 23명의 학생들과 신영훈(64·목수한옥연구소장)산생이 만났다. 학생들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주고 받는 의식을 치를 겨를도 없었다.

"반갑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다. 긴장감이 풀었다. 이내 불쑥 던지는 질문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예술이 뭐지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는 백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능화 선생은 〈한국불교통사〉에서 '工藝發達은 至極 天造(공술발달 지달천조), 하늘의 재주를 취할 뿐이라고 했어요. 천연(天然)스러움과 사람의 어우러짐일테지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대가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예술사 연구'라는 대학원강좌의 첫 강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재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또다른 풍경이다.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안해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가져가세요. 주춧돌 자료카드만 3천장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이니까 오늘은 주로 내기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나에게 물어주세요. 공부한만큼 질문해봐요, 알아들을 것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졸 학력의 목수가 서울대 강단에 선다.' '특강이 아닌 서울대 정규강좌에서 고졸자가 강의하기는 개고 이래 처음이다.' 신선생은 한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우리 건축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펼쳐보인다.

그의 정규학교 최종학력은 고졸. 55년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해에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장이었던 최순우 선생의 일을 도우면서 우리 것을 찾고 집짓는 일에 들어섰다. 한때 전형명 선생의 장학금으로 성균관대 사회과에 입학했으나 2년을 채 다니지 못하고 주저 않았다. 그리고 올해로 마흔 네해를 맞았다. 지금의 직업은 집짓는 목수다.

집 지을 때 나무로 하는 분야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목업행수(木業行首)라는 직책이 있다.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아가 집짓는 일을 아뢰던 사람이다. 한 시대에 몇 사람 뿐이다. 그 밑에 좌편수 우편수가 있다. 목수 신영훈씨는 여기에 들어 해당된다.

집짓기 44년 외길 한시대 몇명뿐인 목업행수 순천 송광사·진천 보탑사·파리 고암서방 등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곳에 그의 손길과 혼 “우리의 건축은 자연과 사람 어우러진 예술”

순천 송광사, 서울미아리 삼선포교묘, 운문사 대웅전, 프랑스 파리의 고암서방, 진천 보탑사 등 이름만 대도 알만한 곳의 집짓기에서 그는 목업행수를 해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최소한 전문대를 졸업해야 시간 강사를 맡을 수 있다. 그래서 한때 서울대 교무처에서는 신선생의 강의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국사학과 교수들은 모두 찬성이었다. 해당분야의 권위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지혜를 전할 수 있다면 학칙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작 신선생은 누가 추천해 강의실에 앉는지도 모른다. 감사 임용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언론의 부스스러움도 불권한다. 잠깐의 휴식시간에 만난 기자에게 '원숭이굴이 뿔어' 하며 웃었다.

'불잡힐 것 같아' 강의 요청을 꺼렸지만 이번 만큼은 지인들의 권유를 예뻐 물리치지 않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강의 일정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라는 질문이었듯,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흔들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시선의 것에 대한 다시 보기. "우리나라 건축사 개념은 서양식이예요. 자료만 우리



◇목수(木壽) 신영훈, 그는 학생들에게 40여년 우리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녔던 자신의 경험을 모두 가져가라고 당부한다.

것을 넣어 분석했을 뿐입니다. 서양건축사는 살림집과 관계 없는 공공건물이 연구대상이고, 또 그 양식의 변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보다 집 위주의 분석일 수밖에요. 집은 남 보라고 짓는 것이 아니지요."

'침성대를 지을 때 어떻게 수량을 맞췄을까요? 또 장군총을 지을 때 그 육중한 화강암을 어떻게 자르고 운반해서 쌓았는지 어느 책에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려면 그냥 '값다 쌓았다' 말고 '이렇게 나르고 쌓았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5천년이라는 역사의 공간은 애정을 지닌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엽니다.'

신영훈 선생이 에타게 전하려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대체 어떤 것일까. 89년 초판을 펴내고 지난 해 7쇄를 찍어낸 〈한국의 조형〉(대원사)에 실은 사진 두 장·'빛산을 담은 지붕'. '工藝發達은 至極 天造'란 화두가 예서 풀어진다. 사진설명은 이렇다. "각이 넓은 삼각형 형태의 빛산과 맞배지붕의 넓은 각이 서로 담았다. 산의 수림과 어울려 자연에 동화되는 선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건은 '빛산을 담은 지붕'으로 시작됐다.

정성은 기자



◇고창 선운사(위)와 충주염으로 물에 잠긴 청풍고을의 '빛산을 담은 지붕'. 신영훈선생이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우리의 아름다움이다.